

재난 뉴스의 점화 효과: 지리적 · 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김 부 중¹⁾

최 윤 경[†]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 뉴스의 점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재난과의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라 외상점화 효과 및 중립점화 효과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고, 스크리닝 설문에서 배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생 75명이었으며, 모든 참가자는 뉴스 동영상을 시청한 후 어휘판단과제를 수행하였다. 설계는 2(지리적 거리) × 2(심리적 거리) × 2(점화 유형) 혼합 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집단이 먼 집단에 비해 점화 효과가 큰 경향성을 보였다. 둘째, 재난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가까운 경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집단이 지리적으로 먼 집단에 비해 점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집단이 먼 집단에 비해 중립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넷째, 재난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에 비해 중립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요약하면, 재난 뉴스가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재난, 매체 노출, 간접외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점화, 지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43448).

또한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2016년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구연 발표된 바 있으며, 이를 수정 보완한 것임.

1)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생

† 교신저자 : 최윤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 053-580-5405, E-mail : ykchoi@kmu.ac.kr



Copyright ©2023,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참사부터 세월호 침몰사건, 최근 경주와 포항의 지진, 그리고 10.29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도 대규모 재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재난은 생존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주민들, 나아가 뉴스를 통해 재난을 지켜본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손승희, 2014; 이흥표, 최윤경, 이재호, 이흥석, 2016; 정의문, 2014; Naturale, 2015). 특히 언론은 재난의 충격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재난의 생생한 영상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처럼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는 생존자뿐만 아니라 뉴스를 접하게 되는 국민들에게 신체적·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김성진, 박경우, 2009; 방문신, 2014; 유승관, 강경수, 2011; 이화행, 정성호, 2014; 임연희, 2014; 한중광, 1999; Newhagen, 1998; Silver et al., 2013). 언론이 재난의 수습에 기여하기 보다는 재난 경험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고 근접 촬영을 하거나, 비참한 사고 장면들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선정적인 보도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매체를 접할 때 불안이 유발되고(구수원, 1999) 아동, 청소년은 특히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Saylor, Cowart, Lipovsky, Jackson, & Finch, 2003; 문운선, 2015; 손승희, 2014).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은 자극적이고 장기적인 보도가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고, 특히 간접 외상과 관련된 반응을 경고하였다(이진희, 김진옥, 김남조, 김분환, 2014; 정의문, 2014). 이를 토대로 외상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매체 보도를 통해 간접 외상 및 관련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Silver, Holman, McIntosh, Poulin, & Gil-Rivas, 2002; Silver et al., 2013; 허연주, 이민규, 2017).

현재,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 DSM-5)에 수록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진단 기준은 친한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거나, 외상 사건의 세부 내용에 반복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간접 외상에 대한 관심이 일부 반영되었다. 하지만 직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한, 영화, TV 등 매체를 통한 외상 경험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경험한 미국이나, 국지적 전쟁이 빈번한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매체 노출에 의한 간접 외상 분야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다. Kira 등(2008)은 친구나 가족이 전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을 알게 된 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손상되는데 매체 노출의 영향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외상 사건에 대한 매체 노출이 PTSD의 높은 예측 변인이며, 매체 노출로 인한 간접 외상이 높은 심리적 고통과 급성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ra et al., 2008; Silver et al., 2013). 즉, 직접 외상뿐 아니라 재난과 같은 대규모 외상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Blanchard et al., 2004; Chrisman & Dougherty, 2014; Freyd, 2002; Garfin, Holman, & Silver, 2015; Kira et al., 2008; Maldonado & Spiegel., 2002; Prince, 1920; Silver et al., 2013; 민문경, 주혜선, 안현희, 2018; 손

승희, 2014).

간접 외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중 지리적 근접성 혹은 지역성은 선행 연구들에서 다른 주요 변인 중 하나이다. 사건 발생 지역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간접 외상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Chrisman & Dougherty, 2014; Blanchard et al., 2004; Garfin et al., 2015; Lee & Blanchard, 2012; Silver et al., 2013). 특히 개인 수준에서 발생한 외상 사건과는 달리, 재난과 같은 집단 외상은 사회적 ·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을 압도하고, 고통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tz, Pellegrino, Pandya, Ng, & DeLisi, 2002).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는데, 사건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도 있고(김영애, 김부중, 최윤경, 2018; Blanchard et al., 2004; Schuster et al., 2001), 반대로 사건발생지역보다 사건으로부터 먼 지역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을 지지하는 연구도 있다(Houston, 2009). 사건발생지역 및 다른 지역 간 비교에서 급성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한 연구도 있다(Garfin et al., 2015). 이처럼 지리적 거리의 영향을 탐색한 선행 연구들마다 다른 결과도 출된 이유로는,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테러나 재난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Ben - Zur, Gil, & Shamshins, 2012; Collimore, McCabe, Carleton, & Asmundson, 2008; Garfin et al., 2015; Houston, 2009). 재난의 생생한 영상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은 다수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보다 매체를 통한 사건에의 반복적인 노출이 간접 외

상과 더 관련된 요인일 수 있다(김은영, 2014; 이달선, 2015; Cho et al., 2003; Garfin et al., 2015; Houston, 2009). 재난에 대한 반복적 노출은 해당 사건에 대한 친숙함을 증가시키고 재난과 심리적으로 가깝게 만들어(배희경, 2011), 더 큰 부정 정서와 외상관련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구교태, 2014; Blanchard et al., 2004; Silver et al., 2013). 즉, 재난에 대한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 또한 간접 외상으로 인한 영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Iyengar와 Kinder(1987)는 뉴스가 어떤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해당 뉴스와 관련된 정보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을 가지게 되고, 그 기억은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떠올라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재난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서 주의 및 기억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신지현, 김교현, 2012; Amir, McNally, & Wiegartz, 1996; Ehring & Ehlers, 2011; Vitaglione, 2012).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매체 폭력성의 영향, 정치적 뉴스 보도의 영향, 혹은 전형적인 매체 콘텐츠의 영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점화 기제가 사용된다. 점화란 대중매체와 같은 자극에의 노출이 이후의 판단이나 행동에 미치는 단기간의 영향을 일컫으며(Roskos-Ewoldsen, Roskos-Ewoldsen, & Carpentier, 2009), 표적 자극과 관련된 과거 경험이 있을 때 수행이 촉진되거나 편향되는 현상을 말한다(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97). 사전 정보에 노출됨으로써 자극의 탐지 확인 능력이 촉진되며, 대개 점화 효과는 '기억하고 있다'는 의식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Bar-Anan,

Liberman, & Trope, 2006). 뿐만 아니라 재난 뉴스에 포함된 강렬한 정서는 기억을 촉진할 수 있다. Brown과 Kulik(1977)는 부정적인 정서가 기억을 증진시킨다고 하였으며, 강하게 활성화된 정서가 기억을 향상시키거나 외상 관련 기억을 촉진시키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박영신, 김기중, 박희경, 2004; Christianson, 1992).

이러한 점에서 점화는 매체를 통한 간접외상과 그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라고 가정할 수 있다. 매체 노출이 점화 효과와 강력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Graf, Mandler, & Haden, 1982; Tulving, Schacter, & Stark, 1982)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체를 통한 재난 노출이 암묵적 기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또한 그 영향이 지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에 따라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기존의 자기보고식 설문 연구에서 나아가 실험적 접근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참가자는 대구 소재의 K대학교 및 춘천 소재의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으며, 심리학 관련 수업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 그리고 눈덩이 표집을 통해 모집되었다.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의향을 밝힌 지원자들 중,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PTSD 증상이 있는 사람 혹은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참가자는 총 75명이었고, 실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 참가자의 연령 범위는 만 18세~24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20.32세였다. 성별은 남자 37명, 여자 38명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75)

변인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37	49.3
	여	38	50.7
지역	대구	15	20.0
	경상도	22	29.4
	강원도	16	21.3
	기타	22	29.3
주로 뉴스를 접하는 경로 (중복 응답)	종이 신문	3	1.9
	TV	41	25.6
	인터넷	69	43.1
	SNS	45	28.1
	기타	2	1.3

측정도구

외상 사건 체크리스트

외상 사건 체크리스트는 생애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충격적인 외상 사건의 유무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주혜선과 안현의(2008)가 고안하였다. 응답자는 본인이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외상 사건이 있다면 '경험 있음'에 모두 체크하고 사건 당시의 연령을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실험 재료에는 대구 지하철 화재 내용이 담긴 뉴스 동영상이 사용되며, 따라서 참가자들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본 질문지를 실시하여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참가자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는 외상 관련 증상 중 과각성을 제외한 침습 및 회피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Horowitz, Wilner와 Alvarez(1979)가 고안하였다. 이후 Weiss와 Marmar(1997)가 과각성 척도를 추가하여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Revised)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현정 등(2005)이 번안한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을 사용하였다. IES-R-K는 외상과 관련된 과각성, 회피, 침습, 수면장애 및 정서적 마비와 해리증상들로 구성된 총 22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증상을 묻는 문항들은 0~4로 된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PTSD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높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 .83$)와 검사-재검사 신뢰도(r

= .89)를 나타냈다.

PTSD 증상을 높게 보고하는 참가자의 경우, 재난 뉴스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본 질문지를 실시하여 25점 이상인 참가자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는 우울증의 역학적 연구목적으로 Radloff(1977)가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3가지 척도를 통합하여 표준화한 통합적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증 척도를 사용하였다.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을 비롯하여 총 20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증상을 묻는 문항들은 0~3으로 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우울감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높은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 .91$)를 나타내었다. 우울 증상이 높을 경우 참가자의 주의 ·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고 반응속도도 지연될 수 있다. 우울 증상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점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을 가진 참가자를 선별하기 위해 CES-D를 실시하였고, 이때 중한 수준의 우울이 시사되는 기준점인 21점 이상일 경우에는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기본 정서 척도

기본 정서 척도(Basic Emotions Scale)는 Power(2006)가 개발한 것으로, 총 20개의 정서를 7

점 척도로 평가하게 된다. 각 개별 정서는 분노(anger), 슬픔(sadness), 혐오(disgust), 불안(anxiety), 행복(happiness)이라는 기본 정서로 분류·합산된다. 이 5개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분노 .81, 슬픔 .84, 혐오 .84, 불안 .79, 행복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시청 전후로 본 질문지를 실시하여 재난 뉴스 시청에 따른 정서 변화를 확인하였고, 사전에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내적 일치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고, 하위 요인의 경우 분노는 .83, 슬픔은 .79, 혐오는 .81, 불안은 .79, 행복은 .91의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심리적 거리감 척도

심리적 거리감 척도는 재난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분류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재난에 대해 기존에 알고 있는 정도를 1~7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7점에 가까울수록 사건에 대해 친숙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반대로 점수가 1점에 가까울수록 사건을 생소하게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및 세월호 침몰 등 국내의 대표적인 재난 8개를 제시하였고, 뉴스 동영상에서 제시되는 특정 재난(대구 지하철 화재)과 관련된 친숙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어휘판단과제

어휘판단과제는 Rubenstein 등(1970, 1971)으로부터 그 사용이 시작된 이래 어휘처리 및 점화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이 과제에서 실험 참가자는 주어진 자극이 단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그에 대해 '그렇다' 혹은 '아

니다'의 형태로 반응을 하고 이에 대한 반응 속도와 정확도가 측정된다. 과제에서 나타나는 단어 자극의 유형은 Ehring과 Ehlers(2011)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그들은 외상관련 위협 단어, 외상관련 중립 단어, 일반위협 단어, 일반 중립 단어로 구분하여 암묵적 기억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뉴스와 관련된 외상 단어와 중립 단어, 그리고 일반적인 외상 단어와 중립 단어로 구분하였고, 이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실험재료

동영상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동영상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미디어에서 보도된 뉴스 3편을 편집한 것으로, 총 길이는 5분 15초이다. 이 영상물은 석사학위 소지자 및 대학원생 총 12명에게 불안, 공포, 슬픔, 분노, 불쾌 정도를 0~10점 척도 상에서 평정 받았다. 각각의 평균 점수는 5.75, 5.25, 7.83, 6.25, 6.42 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뉴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 처치로 사용되었다.

단어 자극

실험재료로 사용된 단어 자극들은 뉴스 관련 외상 단어, 뉴스 관련 중립 단어, 일반 외상 단어, 일반 중립 단어로 구성되었다. 단어 자극은 선행 연구들(임나리, 2014; 임나리, 최윤경, 2020; 장윤지, 최윤경, 2017; 최윤경, 2009)을 참고하였고,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5)도 참고하여 사용 빈도가 비슷한 수준의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단어 총 128개를 친숙

표 2. 단어 유형별 평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

			불쾌-쾌	활성화	친숙성
			<i>M(SD)</i>	<i>M(SD)</i>	<i>M(SD)</i>
단어 자극	뉴스외상 단어	(사전)	1.97(0.32)	4.93(0.37)	3.64(0.75)
		(사후)	1.73(0.25)	5.71(0.37)	4.36(0.32)
	뉴스중립 단어	(사전)	4.21(0.48)	3.88(0.38)	5.07(0.60)
		(사후)	2.75(0.56)	5.03(0.42)	4.98(0.47)
	일반외상 단어		1.87(0.43)	5.17(0.37)	3.68(0.54)
	일반중립 단어		4.34(0.36)	3.57(0.22)	5.14(0.51)

성, 불쾌-쾌, 활성화 차원에 따라 7점 척도로 평정한 후 단어 유형별로 15개씩 선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숙하며 유쾌하고 각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정자는 석사학위 소지자 2명과 대학원생 10명으로, 이들은 실험 처치에 쓰이는 뉴스 동영상 시청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단어를 평정하였다. 그 결과, 뉴스외상-일반외상, 뉴스중립-일반중립처럼 대조되는 단어 유형 간 평정치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영상을 보고 나서 뉴스관련 단어는 다시 한 번 더 평정하였고, 평정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또한 실험재료로 사용된 유사단어 및 비단어 자극들은 권유안(2012), 장현아(2015)가 사용한 것들을 토대로 60개 선정하였다. 그리고 단어 자극의 음절수와 매칭시키기 위해 비단어 자극 중 몇 개는 음절을 추가·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절차

본 연구는 2016년 K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IRB.No: 40525-201602-HR-120-02). 실험 참가자는 심리학 관련 수업이나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 눈

덩이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실험에 지원한 이들 중,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과 임상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실험에서 제외되었다. 배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참가자들에게 실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에 실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한 명씩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출신 지역 등의 기본정보, 현재 정서 상태, 재난 사건 및 지역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보고한 뒤, 소음이 차단된 연구실에서 재난 뉴스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영상 시청 후에는 영상의 이월효과 혹은 신근성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본 과제인 어휘판단 과제와 관련 없는 도형따라그리기 과제를 30초간 실시하고(윤경희, 이경님, 1999; 임나리, 2014; Loizou, Karageorghis, & Bishop, 2014), 이후 점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휘판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어휘판단과제의 지시문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되었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과제의 절차는, 먼저 화면 중앙의 고정점(+)이 750ms 동안 제시되었고, 그 표시가 사라지면 목표자극이 제시되게 하였다. 이 목표자극이 화면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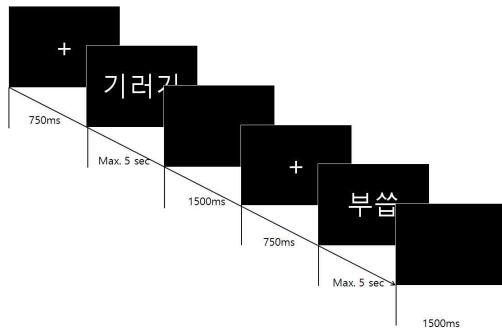


그림 1. 어휘판단과제 시행의 예

되면 해당 글자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하였으며, 참가자에게 반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500ms였다. 본 실험이 실시되기 전, 과제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회의 연습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자극은 단어와 비단어를 포함한 10개로 무선 배열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자극들로 구성되었으며 의미적으로도 무관하였다. 연구자는 참가자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과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의 피드백을 주었고, 참가자가 과제를 이해하였음을 확인한 뒤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극은 뉴스관련 외상단어 15개, 뉴스관련 중립단어 15개, 일반외상단어 15개, 일반중립단어 15개와 비단어 60개로 무선적으로 배열되어 나타나게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니터는 LG IBM(17inch)이었으며, 실험 프로그램은 Direct RT를 사용하였다. 모니터 화면과 참가자와의 거리는 40~50cm정도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모니터의 기울기는 참여자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참가자는 현재의 정서상태와 뉴스 시청 이후의 주관적 불편감을 보

고하게 되며, 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디브리핑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에게 사례품(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그림 1에는 점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어휘판단과제 시행 예시를 나타내었다.

자료분석

재난 뉴스 시청 이후 점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어휘판단의 반응시간을 이용하였다. 반응시간은 Direct RT를 통해 자동적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위는 밀리세컨드(ms)로 하였다. 이때, 선행 연구들(이재호, 2012; Kessler & Moscovitch, 2013)을 참조하여 참가자가 정반응한 문항에 한하여 분석하였으며, 200ms 이하와 4000ms 이상의 반응은 오반응으로 간주해 우선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개인별 반응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SD)를 분석하여 $\pm 3SD$ 의 반응시간도 이상값(outlier)으로 간주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의 4.64%였다. 이렇게 수집된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영상 시청의 사전사후 정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리적 거리(근거리/원거리)와 심리적 거리(근거리/원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는 집단 간 변인으로, 점화유형은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분석하였다. 이때, 출신 지역이 대구 지역이거나 대구로부터 100km 이내의 지역이면 '지리적

근거리'로, 그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경우 '지리적 원거리'로 구분하였다. 또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 대한 친숙도를 확인하여, 상위 약 50%를 심리적 근거리로, 나머지를 심리적 원거리로 분류하였다. 즉, 심리적 근거리는 해당 사건을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끼고 심리적으로 가깝게(close) 느끼는 집단이며, 심리적 원거리는 해당 사건을 생소하게 여기며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distant) 집단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실험조작

실험조작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뉴스 영상 시청 전후의 기본 정서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뉴스 영상을 시청하기 전보다 시청하고 난 후의 분노, 슬픔, 혐오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행복 점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에 사용한 뉴스 영상이 참가자들에게

불안을 제외한 부정정서를 증가시켰으며, 긍정정서를 감소시켰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지리적·심리적 거리에 따른 반응시간 및 점화 효과

재난 사건에 대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그리고 단어유형에 따른 반응시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고, 점화 효과와 같이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때 외상점화 및 중립점화의 값이 양수(+)이면서 클수록 일반 단어들에서보다 뉴스와 관련된 단어에서 반응이 빨랐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점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외상 점화와 중립 점화를 집단 내 변인으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집단 간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를 살펴보면 참가자들의 심리적 거리 [$F(1, 71) = .10, ns$]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리적 거리 [$F(1, 71) = 3.65, p < .10$]의

표 3. 영상 시청 전·후의 정서 변화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N = 75$)

	시청 전	시청 후	<i>t</i>
	<i>M(SD)</i>	<i>M(SD)</i>	
분노	9.52(4.24)	11.57(4.01)	4.62***
슬픔	7.71(3.28)	13.09(4.68)	10.19***
혐오	6.43(2.86)	7.36(3.11)	3.61***
불안	11.96(4.16)	12.48(4.08)	1.22
행복	17.77(5.35)	12.75(5.84)	-9.33***

*** $p < .001$.

표 4. 지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에 따른 반응시간(ms) 및 점화 효과의 평균과 표준편차표

자극 및 점화유형	지리적 근거리		지리적 원거리		
	심리적 근거리	심리적 원거리	심리적 근거리	심리적 원거리	
	(n = 18)	(n = 12)	(n = 14)	(n = 31)	
외상	일반외상	592(104)	551(67)	594(81)	572(88)
	뉴스외상	564(79)	563(66)	589(100)	560(79)
	외상점화	28(46)	-12(46)	5(44)	12(40)
중립	일반중립	564(81)	561(78)	573(72)	555(61)
	뉴스중립	543(81)	527(59)	591(118)	544(69)
	중립점화	21(52)	34(45)	-18(52)	11(45)

주. ()안은 표준편차.

표 5. 지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및 점화유형에 따른 점화 효과의 반복측정 변량분석표

변량원	SS	df	MS	F	η^2
집단 간					
지리적 거리(A)	7609	1	7609	3.65 [†]	.05
심리적 거리(B)	215	1	215	.10	.00
(A) × (B)	7977	1	7977	3.82 [†]	.05
오차	148224	71	2088		
집단 내					
점화유형(C)	412	1	412	.20	.00
(A) × (C)	8250	1	8250	4.05 [*]	.05
(B) × (C)	11621	1	11621	5.71 [*]	.07
(A) × (B) × (C)	1777	1	1777	.87	.01
오차	144602	71	2037		

[†] $p < .10$. * $p < .05$.

주효과와 지리적 거리 × 심리적 거리[$F(1, 71) = 3.82, p < .10$]의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경향성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화유형[$F(1, 71) = .20, ns$]의 주효과와 지리적 거리 × 심리적 거리 × 점화유형[$F(1, 71) = .87, ns$]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리적 거리 × 점화유형[$F(1, 71) = 4.05, p < .05$]과 심리적 거리 × 점화유형[$F(1, 71) = 5.71, p < .05$]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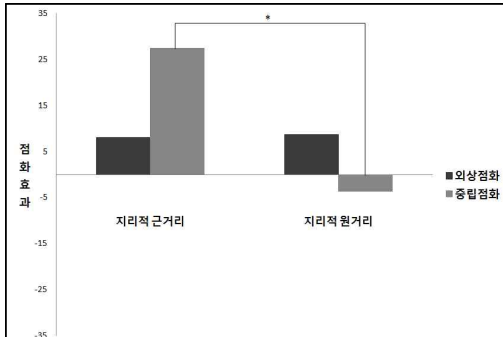


그림 2. 지리적 거리와 점화유형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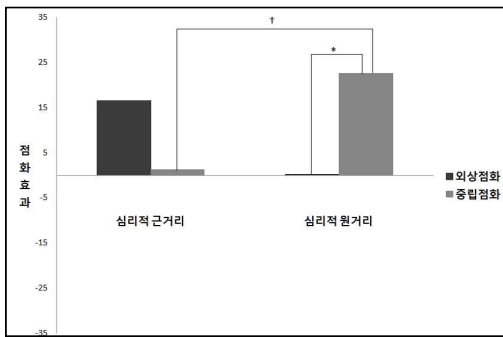


그림 3. 심리적 거리와 점화유형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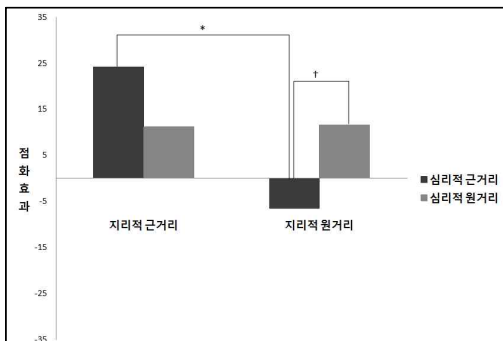


그림 4.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

이원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 3, 4에 각각 나타내었다.

먼저, 지리적 거리 및 점화유형에 따른 점화 효과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중립점화에서 지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의 차이 [$F(1, 73) = 7.03, p < .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립점화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울 때 점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리적 근거리 집단이 지리적 원거리 집단에서보다 중립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심리적 거리 및 점화유형에 따른 점화 효과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심리적 원거리 집단에서 점화 유형간 차이 [$F(1, 71) = 4.23, p < .05$]가 나타났다. 또한 중립점화에서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의 차이 [$F(1, 73) = 3.32, p < .10$] 경향성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원거리 집단에서 외상점화 효과보다 중립점화 효과가 컸으며, 심리적 근거리 집단보다 심리적 원거리 집단의 중립점화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심리적 원거리 집단보다 심리적 근거리 집단의 외상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 효과의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지역에 따른 점화 효과 차이가 유의하였다 [$F(1, 71) = 4.30, p < .05$]. 또한 물리적으로 먼 지역에서 심리적 거리에 따른 차이 경향성이 나타났다 [$F(1, 71) = 3.07, p < .10$]. 즉, 심리적 근거리 집단에서 지리적 거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적 근거리이면서 지리적 원거리인 집단에 비해 심리적 · 지리적 근거리 집단에서 점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각 점화유형에 따라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일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외상점화 효과와 중립점화 효과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지리적 근거리 집단 안에서 재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먼 참가자들보다 가까운 참가자들의 외상점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1, 28) = 5.20, p < .05$). 지리적 원거리 집단 안에서는 재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먼 참가자들의 중립점화 효과가 경향성 수준으로 큰 것을 확인하였다($F(1, 43) = 3.97, p < .10$).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리적 거리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리적 거리에 따른 주효과 경향성이 확인되어, 지리적 근거리 집단이 지리적 원거리 집단보다 점화 효과가 경향성 수준에서 크게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거리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상호작용이 경향성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심리적 근거리 집단에서 지리적 거리에 따른 단순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점화 유형과 관계없이 재난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집단이 점화 효과가 컸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재난 뉴스 시청 이후 재난 사건에 대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에 따른 점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매체 노출에 의한 간접 외상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매체를 통해 재난과 같은 집단적 외상 사건에 노출될 경우, 사람들이 부정정서를 경험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을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그 기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암묵적인 측정 방식으로 간접 외상의 기제를 탐색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재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지리적 근거리로, 그 외의 지역을 지리적 원거리로 구분하였고, 해당 재난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 변인을 추가하여 심리적 거리가 먼 집단과 가까운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암묵기억 과제인 어휘 판단과제에서는 단어의 유형을 뉴스외상 단어와 일반외상 단어, 그리고 뉴스중립 단어와 일반중립 단어로 구분해서 각 단어 유형에 대한 반응시간과 점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집단에서보다 가까운 집단의 점화 효과가 경향성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뉴스 보도 이후의 영향력이 지리적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사건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들(Blanchard et al., 2004; Schuster et al., 2001)과 일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심리적 근거리 집단과 심리적 원거리 집단의 점화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단순히 재난에 대한 친숙함 정도가 심리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선행 연구(Piotrkowski & Brannen, 2002)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매체 노출의 정도 및 그에 따른 사건 친숙 정도가 주는 영향이 단순한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의 수준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rendt, 2015; Houston, 2009).

셋째, 재난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집단의 외상점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체를 통해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 중, 특히 재난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사람들이 일반적인 외상 단서에서보다 재난 보도와 관련된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체 등을 통해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상 사건과 관련된 위협 단서를 빠르게 탐지하며, 외상과 유사한 자극에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들(안정태, 2004; 임나리, 2014; 장윤지, 최윤경, 2017; Amir et al., 1996; Foa, Steketee, & Rothbaum, 1989; Ehring & Ehlers, 2011; Iyengar & Kinder, 1987; Tulving & Schacter, 1990)에 기반하여 설명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에서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상호작용하였음이 시사된다. 다시 말해서, 재난 발생 후 사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서도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노출되고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경우에 재난과 관련된 외상 정보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뿐만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지리적·심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점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난과 관련된 특정 외상 정보에 연합되는 것을 넘어서 매체에서 보도된 다른 중립적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언급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수행한 연구대상이 대학생 집단이었다. 이에 전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실험 영상으로 처치한 재난이 십여 년 전에 발생한 것임을 감안

하면 대학생들에게는 해당 사건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여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건에 대한 친숙함(familiarity)만을 심리적 거리라는 개념으로 호환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심리적 거리는 다차원적 속성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이는 사물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구자경, 2015; 김봉기, 2014; Nan & Heo, 2007;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후속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의 개념을 재난과의 시간적 거리, 자신과의 관련성 등을 포괄하는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정하여 접근해본다면, 매체를 통한 간접 외상과 그 기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를 각 두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거리감이 주는 영향이 단조롭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Arendt, 2015; Houston, 2009)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동성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확보하고 지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의 하위 수준을 추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뉴스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탐색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재난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된 사람들이 받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자기보고식 검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암묵적 기억 실험을 통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자기보고식 검사에

만 의존하기보다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통해 매체에 의한 간접 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난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 집단 외상 사건에 노출된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어떠한 조건에서 이에 취약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또는 국가 차원에서 대중들에 대한 심리적 치유/안정을 위한 접근과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근래 10.29 참사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테러 및 재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간접 외상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체를 통한 간접 외상을 초점으로 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집단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집단적 외상 사건이 일어날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접 외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초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향후 간접 외상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구교태 (2014). 재난에 관한 위협이 미디어 의존과 재난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3), 128-147.

구수원 (1999). *재해방송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자경 (2015). 미디어유형에 따른 심리적거리가 메시지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CSR 공익캠페인의 해석수준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립국어연구원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권유안 (2012). 첫 음절 토큰 빈도와 타입 빈도가 단어 및 유사 단어 어휘 판단 시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4(4), 315-328.

김봉기 (2014). 의료관광자의 심리적 거리와 관광지 선택속성이 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관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진, 박경우 (2009). 국가재난사고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 형태 연구. *언론학연구*, 13(2), 5-41.

김영애, 김부종, 최윤경 (2018). 세월호 사건 후 근접성, 매체 노출, 초기 반응 및 평가가 집단 정서에 미치는 영향. *대한스트레스학회*, 29(1), 68-75.

김은영 (2014). 매스컴과 테러사건의 간접적 피해: 매스컴을 통한 테러사건의 노출과 PTSD 및 심리적 장애의 발현, 기타관련 요인에 관한 논의. *한국테러학회보*, 7(3), 5-30.

문윤선 (2015). 대형인명 사고로 인한 간접적 외상이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912 경주 지진을 경험한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개인 리질리언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공적 신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5), 93-

- 116.
- 박영신, 김기중, 박희경 (2004). DRM 패러다임에서 오기억과 실제 기억에 미치는 부적 정서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6(2), 131-150.
- 방문신 (2014). 세월호 재난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 *관훈저널*, 131(여름호), 13-26.
- 배희경 (2011). 친숙성이 심리적 거리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 신지현, 김교현 (2012). 외현기억과 암묵기억의 해리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서 외상 관련 자극의 인지적 처리과정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3), 747-765.
- 안정태 (2004). 암묵적 기억 측정을 통한 TV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의 효과연구: PPL의 사후 광고에 대한 점화이론을 통한 접근.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관, 강경수 (2011).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연구*, 76(가을호), 140-169.
- 윤경희, 이경님 (1999). 과제유형과 범주전형성에 따른 아동의 회상수행과 조직화전략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7(2), 55-72.
- 은헌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 303-310.
- 이달선 (2015). 미디어 노출 통한 재난사건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대처방식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호 (2012). 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정서적 평가 차이. *인지과학*, 23(3), 323-348.
- 이진의, 김진옥, 김남조, 김분한 (2014). 기술재해 이후 국민들의 인식유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주관성 연구*, (29), 5-27.
- 이화행, 정성호 (2014).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 보도 경향 연구. *언론학연구*, 18(2), 157-183.
-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411-430.
- 임나리 (2014). 암묵기억 과제를 이용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병의 탐지.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나리, 최윤경 (2020). 암묵기억 과제를 이용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병의 탐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6(2), 117-138.
- 임연희 (2014).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25(4), 179-201.
- 장윤지, 최윤경 (2017). 유사 외상 상황에 의한 지각적 점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2), 165-176.
- 장현아 (2015). 노화가 점화단어유형 및 자극제 시시간에 따른 어휘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의문 (2014). 세월호 사건 매체노출이 대학생들에게 미친 간접외상에 대한 연구: 외상관련 부정적 신념과 회복탄력성을 조절변인으로

- 로.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혜선, 안현의 (2008). 외상후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235-257.
- 최윤경 (2009). 외상 관련 DRM 목록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 929-942.
- 한중광 (1999). 항공기 재난보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연주, 이민규 (2017).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간접외상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3), 381-40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DSM-5)*. Washington, DC: Author.
- Amir, N., McNally, R. J., & Wiegartz, P. S. (1996). Implicit memory bias for threat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0*(6), 625-635.
- Arendt, F. (2015). Toward a dose-response account of media priming. *Communication Research, 42*(8), 1089-1115.
- Bar-Anan, Y., Liberman, N., & Trope, Y.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nstrual level: evidence from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4), 609-622.
- Ben -Zur, H., Gil, S., & Shamshins, Y.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terror through the media, coping strategies and resources, and distress and secondary traumat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9*(2), 132-150.
- Blanchard, E. B., Kuhn, E., Rowell, D. L., Hickling, E. J., Wittrock, D., Rogers, R. L., ... & Steckler, D. C. (2004). Studies of the vicarious traumatization of college students by the September 11th attacks: Effects of proximity, exposure and connected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2), 191-205.
- Brown, R., & Kulik, J. (1997). Flashbulb memories. *Cognition, 5*, 73-99.
- Cho, J., Boyle, M. P., Keum, H., Shevy, M. D., McLeod, D. M., Shah, D. V., & Pan, Z. (2003). Media, terrorism, and emotionality: Emotional differences in media content and public reactions to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7*(3), 309-327.
- Chrisman, A. K., & Dougherty, J. G. (2014). Mass trauma: Disasters, terrorism, and wa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3*(2), 257-279.
- Christianson, S. A. (1992). Emotional stress and eyewitness memory: A crit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2*, 284-309.
- Collimore, K. C., McCabe, R. E., Carleton, R. N., & Asmundson, G. J. (2008). Media exposure and dimensions of anxiety sensitivity: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PTSD symptom cluster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6), 1021-1028.
- Ehring, T., & Ehlers, A. (2011). Enhanced priming for trauma-related words predict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0*(1), 234-239.
- Foa, E. B., Steketee, G., & Rothbaum, B. O. (1989). Behavioral/cognitive conceptualization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r Therapy, 20*(2), 155-176.

- Freyd, J. J. (2002). In the wake of terrorist attack, hatred may mask fear.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2(1), 5-8.
- Garfin, D. R., Holman, E. A., & Silver, R. C. (2015). Cumulative exposure to prior collective trauma and acute stress responses to the Boston Marathon bombings. *Psychological Science*, 26(6), 675-683.
- Graf, P., Mandler, G., & Haden, P. E. (1982). Simulating amnesic symptoms in normal subjects. *Science*, 218(4578), 1243-1244.
- Horowitz, M.,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41(3), 209-218.
- Houston, J. B. (2009). Media coverage of terrorism: A meta-analytic assessment of media use and posttraumatic stres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6(4), 844-861.
- Iyenga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Agenda-setting and priming in a television age*.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tz, C. L., Pellegrino, L., Pandya, A., Ng, A., & DeLisi, L. E. (2002). Research on psychiatric outcomes and interventions subsequent to disast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iatry Research*, 110(3), 201-217.
- Kessler, Y., & Moscovitch, M. (2013). Strategic processing in long-term repetition priming in the lexical decision task. *Memory*, 21(3), 366-376.
- Kira, I. A., Templin, T., Lewandowski, L., Ramaswamy, V., Ozkan, B., & Mohanesh, J. (2008).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effects of Iraq war media exposure on Iraqi refugees. *Journal of Muslim Mental Health*, 2(2), 193-215.
- Lee, M. R., & Blanchard, T. C. (2012). Community attachment and negative affective states in the context of the BP Deepwater Horizon disaster.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6(1), 24-47.
- Loizou, G., Karageorghis, C. I., & Bishop, D. T. (2014). Interactive effects of video, priming, and music on emotions and the needs underlying intrinsic motiv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5(6), 611-619.
- Maldonado, J. R., & Spiegel, D. (2002). Trauma, Dissociation, and Hypnotizability. In J. D. Bremner & C. R. Marmar (Eds.), *Trauma, memory, and dissociation* (pp. 57-10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Nan, X., & Heo, K. (2007). Consumer response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itiatives: Examining the role of brand-cause fit in cause-related marketing. *Journal of Advertising*, 36(2), 63-74.
- Naturale, A. (2015). How Do We Understand Disaster-related Vicarious Trauma,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Compassion Fatigue? In G. Quitangon & M. R. Evces (Eds.), *Vicarious trauma and disaster mental health: Understanding risks and promoting resilience* (pp. 73-89). New York, New York: Routledge.
- Newhagen, J. E. (1998). TV news images that induce anger, fear, and disgust: Effects on approach avoidance and memory.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2(2), 265-276.
- Piotrkowski, C. S., & Brannen, S. J. (2002). Exposure, threat appraisal, and lost confidence

- as predictors of PTSD symptoms following September 11, 2001.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4), 476.
- Power, M. J. (2006). The structure of emotion: An empirical comparison of six models. *Cognition and Emotion*, 20(5), 694-713.
- Prince, S. H. (1920). *Catastrophe and social change: Based upon a sociological study of the Halifax disaster*. New Y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oskos-Ewoldsen, D., & Roskos-Ewoldsen, B., & Carpentier, F. D. (2009). Media priming: An updated synthesis. In J. Bryant & M. B. Oliver (Eds.), *Media effec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74-93). New York, New York: Routledge.
- Rubenstein, H., Garfield, L., & Millikan, J. A. (1970). Homographic entries in the internal lexic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9(5), 487-494.
- Rubenstein, H., Lewis, S. S., & Rubenstein, M. A. (1971). Evidence for phonemic recoding in visual word recognition.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10(6), 645-657.
- Saylor, C. F., Cowart, B. L., Lipovsky, J. A., Jackson, C., & Finch, A. J. (2003). Media Exposure to September 11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periences and Posttraumatic Symptom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2), 1622-1642.
- Schuster, M. A., Stein, B. D., Jaycox, L. H., Collins, R. L., Marshall, G. N., Elliott, M. N., ... & Berry, S. H. (2001). A national survey of stress reactions after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5(20), 1507-1512.
- Silver, R. C., Holman, E. A., Andersen, J. P., Poulin, M., McIntosh, D. N., & Gil-Rivas, V. (2013). Mental-and physical-health effects of acute exposure to media images of the September 11, 2001, attacks and the Iraq war. *Issue: Psychological Science*, 24(9), 1623-1634.
- Silver, R. C., Holman, E. A., McIntosh, D. N., Poulin, M., & Gil-Rivas, V. (2002). Nationwide longitudinal study of psychological responses to September 11.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8(10), 1235-1244.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Consumer Psychology*, 17(2), 83-95.
- Tulving, E., & Schacter, D. L. (1990). Priming and human memory systems. *Science*, 247(4940), 301-306.
- Tulving, E., Schacter, D. L., & Stark, H. A. (1982). Priming effects in word-fragment completion are independent of recognition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8(4), 336-342.
- Vitaglione, G. D. (2012).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Mass Media): A Four Year Examination of NASCAR and West Virginia

- Aggressive Driving Accidents and Injur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2), 488-505.
-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n J. P. Wilson & T. M. Keane (Eds.),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pp.399-411). New York, New York: Guilford Press.
- Williams, J. M. G., Watts, F. N., MacLeod, C., & Mathews, A. (1997). *Cognitive psychology and emotional disorders* (2nd ed.). Chichester, England: Wiley.
- 논문 투고일 : 2022. 11. 07
1 차 심사일 : 2022. 11. 15
2 차 심사일 : 2022. 12. 18
게재 확정일 : 2022. 12. 19

Priming Effects of Disaster-related TV News: Focusing on the Interactions of Geograph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Bu Jong, Kim

Yun Kyeu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iming effects of disaster-related news. Specifical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riming effects about trauma words and neutral words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rom the disaster.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75 college students who had not experienced the Daegu subway fire accident, and whom were not ruled out after completing the screening measure completing the screening measure the completion of questionnaires for screening. All participants conducted a lexical decision task after watching a news video about the Daegu subway fire accident. The design was a 2 (Geographical distance: close vs. distant) \times 2 (Psychological distance: close vs. distant) \times 2 (Priming type: trauma priming vs. neutral priming) mixed-desig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roup which was geographically closer to the disaster tended to revealed a largerbigger priming effect than the distant group-a trend toward significance. Second, within the psychologically closer to the disaster, group, for those who were geographically closer too, the priming effect was larger for those who were geographically closer geographically closer than for the geographically distant group. Third, the geographically closer group had a largerbigger neutral priming effect than the distant group. Fourth, the psychologically distant group had a largerbigger neutral priming effect than the close group. To sum up, this study identified that disaster news coverage may have an implicit effect on people, and this influence can change according to the geograph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disaster, media exposure, indirect trauma, PTSD, priming, geographical distance, psychological distance

부 록

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단어 목록

뉴스외상 단어		
고통	악몽	참사
방화범	오염	처참
불길	유가족	통곡
사망자	유독가스	화재
시신	재난	희생자

뉴스중립 단어		
내부	역사	전화
뉴스	연기	중앙로
도착	열차	지하철
라이터	입구	철도
시내	전동차	휘발유

일반위협 단어		
급발진	왕따	태풍
납치	유괴	학대
뺑소니	자살	핵무기
산사태	지진	협박
성폭행	추락	홍수

일반중립 단어		
고무	도서관	어깨
깃발	면허증	육교
냄비	빗자루	은행
녹음	색연필	잡초
덮개	시계	주전자

(계속)

	비단어	
감절땀	룩쉬	잔건
격수	맨수펄	저궁
검람도	맬니	좀옥
갯포	멍유튜	좀컬미
곳청맹	몸섭카	좁얼
관송	묵년	줏담
군밋티	몽잘병	줏임
긴성	민샤	침퓨
김양	땃금	초튜소
낙견리	빅규	취광
녕박	산릴따	콥리
녕적	소닐	크랩
논땃	손께쵸	팡끼
놀피	싱결	풀벳
님관포	싱류	프깡도
댁걸	암고료	행규
덤색미	올몹	헛망
따쿵	음바	휘송
란티	웃넙싸	흑인콧
랑떡티	응골	홍톡